"경찰서마다 경승있어야 하는데…"

21일 '경찰의 날'…경승단 창설 10돌

경찰관의 정서함양 유치인교화 청소년선도활동을 위해 창설된 대한불교 경승단이 경찰의날인 지난 21일을 맞아 창단 10주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경승활동은 현재 전국의 2백51개 경찰서 중 경승이 위촉된 곳은 197개소, 이중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경찰서에서는 경승활동이 거의 유명무실하다 할 정도로 부진한 실정이다. 발족 10주년을 계기로 경승제도의 재정비와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편집자 주〉

◇경승단 창설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경승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251곳중 120곳 경승활동 '경찰 포교 유명무실'

경찰 신행모임 10곳뿐…조직·자질 강화 절실

경승제도는 1986년 12월 10일 내무부 예규 제 638호로 '경찰위촉 승려 운영규정'이 제정돼 대한불교경승단(단장 혜창)이 전국적으로 정식 경승을 위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경승활동은 이미 77년 암도스님이 경찰대학 상임교수로, 79년 자우스님이 서울시경 경승법사로 추천돼 활동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경승활동은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10년, 비공식적으로는 2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셈이다.

20여년의 세월동안 경승단과 경승은 무엇을 이뤄냈을까.

포교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2백51개 경찰서중 경승이 위촉된 곳은 1백97개소이며, 경승없는 곳이 54곳에 이른다. 그러나 경승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곳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1백20여곳이다. 그 중 경승실이 설치돼 있는 곳은 69개소이고 나머지 1백41개 경찰서에서는 경승실마저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41개 경찰서에서는 경승실 유무가 파악안될 만큼 경승활동이 부진하다. 전국 각 경찰서에 위촉된 경승은 5백60여명(조계종 3백63명, 태고종 77명, 기타 1백명)으로 경찰서당 경승인원은 약 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목 1천8백67명의 1/3수준이며,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 회원 5천2백54명에는 1/1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경승제의 재정비를 통한 경승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경승활동의 부진은 경찰불자들의 신행모임에도 영향을 미쳐 서울시경불자회 대구경찰법우회 마산중부경찰서불경협의회 충북경불회 등 고작 10여곳에서만이 직장법회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마산중부경찰서불경협의회 이광삼회장은 "시간에 쫓기는 경찰관 불자들이 신행활동을 하고 싶어도 갈곳이 없고, 가르침을 받을 법사가 없어 신행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승단의 관심과 지도력을 호소했다.

경승단과 경승제의 유명무실은 지난 8월21일 개정된 경찰청 예규 제 166호 '경찰위촉 목사승려 운영규칙'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종단이나 경승실은 사전에 통보를 받지도 의견을 개진해 보지도 못하는 설움을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후에도 두달이나 되도록 개정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는 등 남몰래 속앓이를 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발족 10주년을 맞은 이제 경승단을 비롯한 경승제도의 활성화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돼 버린 것이다.

경승단의 업무를 관장하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와 포교원은 그동안 경승협의회 구성, 〈경승법요집〉〈활동지침서〉 등 경승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편찬사업, 예산확보 등 선언적 '전시용 공약'만을 남발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경승조직을 강화하고 경승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혁신적인 활성화 방안의 제시와 경승활동에 대한 인적·물적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 포교일선에 나선 경승은 지역유지행세 및 명함에 직함을 하나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정기법회의 정례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경승활동 자구책 모색 등 경승활동의 의무와 포교를 위해 전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필선 기자

사회복지 실천 '진일보'

조계종 복지재단 하반기 사업계획 의미

지방순회교육·1寺 1人결연등 추진

자원봉사단 확대등 '자비행' 주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이 지난 12일 8개분야 15개에 걸친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불교계 및 대사회적인 자리매김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4/4분기 사업계획은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사업 △자원봉사센터운영 △불우이웃 결연 및 후원사업 △승가복지사업 △사회복지교육·문화사업 △사회복지 출판·홍보사업 △사회복지에 관한 상담 및 정보자료실 운영 △사회복지 자원조사·연구 및 개발 등의 복지재단 사업기조를 구체화한 것.

복지재단은 우선 불교복지시설·단체지원사업의 하나로 불교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불교우수프로그램 공모와 불교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 및 기술지원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재단은 문화교육 및 자원조사연구개발사업으로 불교사회복지교양대학 개설, 불교사회복지종사자 연수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본말사주지스님과 일반불자들을 대상으로한 지방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인적자원발굴 및 불교사회봉사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계기로 분석된다.

복지재단은 또한 결연후원사업으로 '1사찰 1자원봉사센터 개설운동' '1사찰 1인 결연운동'을 추진한다.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1사찰 1인 결연운동'은 특히 전국 각 사찰과 단체가 불우이웃과 결연을 맺고 동체대비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교의 교세확장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판홍보사업은 불교사회복지, 자원봉사자교육, 간병인교육, 장의예식교육 등 4개분야에 걸친 교육용교재발간, 각종 복지관련서적 출판, 불교복지단체 실무수첩 제작과 함께 회지발간, 리플렛, 포스터 등의 제작을 통해 복지재단의 사업내용과 활동상을 적극 홍보하고 사회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복지재단은 자원봉사운동을 확산시키고 전문기능을 가진 봉사자의 확보 및 봉사분야의 다변화를 위해 기존의 간병, 장의예식, 해난구조, 가족봉사단 등 1천여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확대, 재난구조 산악구조 직장인 월드컵 청소년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재단은 복지사업의 질적인 향상과 복지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격주로 사랑방 형식의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 학계 및 종단, 시설단체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복지재단의 이같은 사업계획은 불교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행사성 복지프로그램에서 탈피, 불교복지정책 수립 및 교계복지 저변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못 기대된다. 〈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교계 최초로 불교 우수복지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종단내 사회복지 자원개발을 통한 복지시설 및 단체의 질적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은 본사와 공동으로 지난해말부터 올 2월까지 한마음선원의 후원아래 전개한 '한마음법등 저금통 모금운동'에서 모금된 1천5백만원의 성금이 전액 지원된다. 복지재단은 금년중 실행된 불교복지프로그램중 보급 가능한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3개와 97년 실시 예정인 지역복지 프로그램 3개를 선발해 표창·지원할 방침이다.

불교복지 프로그램 공모

'한마음저금통' 모금전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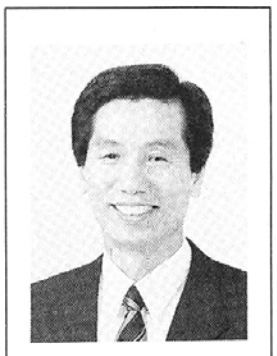
또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어린이복지시설 1백개소를 선정해 불교동요테잎을 무상으로 배포, 새싹포교의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1월11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사례발표회와 함께 가질 예정이다.

조계종 복지재단 (02)723-5101

시 론

선진국 수준을 향하여



김 규 칠
〈시사평론가·방송인〉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에 가입하기로 확정되었다.

OECD에는 선진국들외에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선진국문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국가들도 가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들 선발개도국(중진국)그룹의 하나로서 가입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준선진국 그룹에 속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추진해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다각적이고 무차별한 무역, 결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저개발지역에의 개발원조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식개혁 선행

OECD는 광범위한 자본주의권국가들 사이에서의 국제경제협력기구이지만 가맹각국을 강제할 만한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상호 교역관계와 기타 협력관계 때문에 콘센서스를 형성하는, 집약된 의견은 은연중 회원국들이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원칙적으로 가입각국의 국내경제정책의 조정과 같은 국가 주권과 관계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도모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지만, 근래에 와서는 타국의 경제, 사회, 노동, 교육정책 등에 대해서까지도 의견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구속력은 없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 의견일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특히 무역이나 자본의 자유화, 경제원조의 확대등의 면에서는 OECD가 상당히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문에서의 의견조정 압력은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세계무역기구, 즉 WTO체제가 출범하여 선진국들이 WTO체제를 좌지우지 하는 판에 WTO주역들이 바로 OECD중심국가들인 점을 미뤄볼때 우리 준선진국, 사실은 선발개도국들 입장에서는 소수자, 즉 마이노리티 입장에 서게 되어 있다. 물론 현재의 교역관계가 선진국전체 대 선발개도국전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들의 정보와 노·하우, 기술수준에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전보다 더 그들의 말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가입확정시의 여러가지 권고사항등 조건이 까다롭고 주문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당분간은 얻어냈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그러한 조건 내지는 권고사항을 이행해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금융정책의 선진화 자본시장의 개방이나 노동관계 법규와 정책의 개선정비,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의 현실화와 합리화 등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선진국수준을 향하여 급피치를 올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억지로라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내실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선진국 노는데 끼지못하면 그나마 현재 맺고 있는 수준의 협력관계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선진국 그룹에 가입할 수준에 든 것처럼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가입하면 얻을 소득이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기에 가입은 하였던 것이다. 우리국민은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있을 때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일층 분발하는 성향도 있으니, 차제에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에 박차를 가해 각 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적당히 봐달라는 식의 사정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유보받은 것들도 머지않아 이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임하는게 좋다. 이제 100% 자유화, 개방화는 필연적이다. 안으로 실력을 쌓아 두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것은 뻔하다. 개성있는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만한 기술이 있든지, 비슷한 것이라도 탁월할 수 있든지 둘중 하나는 해야 한다.

우리 것을 창조해 내자

어정쩡하거나 적당히 두드려 맞춘 물건이나 아이디어 등으로는 아예 경쟁할 생각도 말아야 할 때가 곧 닥쳐온다. 아니, 이미 닥쳐 왔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조금 잘한다고 자만할 게 아니라, 진짜 세계무대에서 가장 개성있고 독창적이고 특이한 것, 기술에 있어서 뒤지면 디자인에 있어서라도(고급디자인은 기술과 깊은 관계에 있지만) 빼어난, 그러한 물건을 만들 능력을 한하루빨리 길러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토착 문화와 전통문물과 가까운 우리 불교문화속에 세계에 내세울만한 독창적이고 개성있고 특이한 것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바, 우리것을 되돌아 보고 창조적인 불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담 화 문

원로대덕 스님 및 사부대중 여러분

본인은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총림의 가풍이 흔들리고 나아가 종단의 위계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최근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심히 안타까움을 금 할 수 없습니다. 한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해인총림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방치 된다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는 일이고, 그 사태에 있어 본인의 책임이 막중하기에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하오니 원로대덕스님 및 사부대중께서는 본인의 충심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우선 종단의 위계와 화합을 위해 종헌과 종법은 확고하게 준수되어야 종단의 위상과 기강이 확립됩니다. 현재의 종헌·종법은 한국불교의 전통과 계승발전을 염려하는 대중의 손으로 만들어진 개혁의 산물 입니다. 과거 중앙종권을 담당한 일부 소임자가 대중의 뜻을 저버리고 전횡을 부리던 폐습을 일소하고 참으로 진정한 대중공사를 통해 실현시킨 종헌과 종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갓 두해를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몇사람으로 인해 종헌·종법이 위배되는 악 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노구를 이끌고 개혁에 앞장섰던 본인은 종헌 종법을 무시하는 전횡이 이루워지고 있는 현실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가야산 골프장 건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전 대중이 뜻을 함께 하고 있는데, 해인사에 내홍이 일어나면서 그 사실의 일부가 왜곡된 점이 있고, 또 그로인해 총림의 대중상호간에 불신과 반목이 증폭되고 있는바, 본인은 간곡히 당부컨데 서로 화합·합심하여 민족의 성지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에 하나 가야산이 파괴되는 일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총림의 전 대중은 선조와 후학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함이니,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신념으로 가야산을 지켜야 합니다.

본인은 지난 9월 20일 해인총림의 방장과 원로의장직을 스스로 물러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까닭은 총림의 살림을 맡은 주지 이하 관련 소임자들이 대중에게 불신을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총림의 질서가 위협받게 되는 내홍이 발생하여 총림을 대표하는 방장으로서 책임을 확실하게 표하고자 함 이었습니다. 골프장 문제로 사퇴하였다는 언론보도는 진실이 아님을 밝히는 바 입니다.

그러나 방장 사퇴후에도 내홍은 수그러 들지 않고 오히려 반목이 증폭되고 종헌·종법을 위배하는 다수 대중의 횡포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해인사 문제는 올바른 법과 제도를 통해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인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미스런 일을 막고자 부득히한 조치로 그 책임을 물어 현 주지 성법이하 관련 소임자들의 사퇴를 강력히 권고하고 실현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퇴 표명이후 그 동안의 성법, 무착스님의 행위는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일어난 일 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불상사가 일어남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불미스런 행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해인사 사태가 종헌 ·종법에 의해 올바르게 수습되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 입니다.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본인이 이렇게 까지 입장을 밝히는 충심을 진정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거듭 당부하건대 해인 총림의 대중을 비롯하여 전 대중은 종헌과 종법을 준수하고 화합대중의 수행가풍을 선양하여 종단의 위계와 수행자 본분사를 지켜 불조혜명을 잇고 한국불교가 무궁하게 발전하도록 위법망구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기 2540년 10월 15일

伽 倻 山 人 慧 菴 合 掌